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애꿎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다.

문헌의 첫 기록
17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7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애꿎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다.

애꿎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애꿎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익굳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애꿎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익굿- 문헌 수록 표기	—	—	●→	—	—	—
이싫- 문헌 수록 표기	—	—	—	—	—	●→
익궂- 문헌 수록 표기	—	—	—	—	—	●→
애싫- 문헌 수록 표기	—	—	—	—	—	●→
애꿎-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익궂다
  17세기
- 애꿎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5종

익굿-, 익궂-, 애쓿-, 이쓿-, 애꿎-

애꿎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애꿎다'의 옛말인 '익궂다'는 17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익궂-'은 모질고 사나운 운수를 뜻하는 한자어 '厄'을 한글로 표기한 명사 '익'과 나쁘다를 뜻하는 형용사 어간 '궂-'이 결합한 것인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17세기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 '익굿-'으로 나타난다.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ㅣ'도 'ㅐ'로 변하고 제2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어 20세기에 '애꿎-'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20세기에 '이쓿-, 애쓿-' 등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ㄱ'의 된소리를 'ㅺ'으로 표기하는 옛 관습을 따른 것이다.

문헌 속의 애꿎다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7세기 익굿-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익굿-

출처 1690 역어유해 하:44ㄱ

용례 01

문헌 용례

晦氣 익굿다 忌會 익굿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이쓪-, 익굿-, 애쓪- 외 1종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이쓪-, 익굿-, 애쓪-, 애꼿-

출처 1908 치악산 상:102

용례 02

문헌 용례

며누리의 힝실 그른 거슨 덥퍼 두고 며누리를 친졍으로 쏫치면 이ᄭᅮ진 시어미의 심ᄒᆞ다는 소문만 나깃소구려.

현대어 풀이

며느리의 행실 그른 것은 덮어 두고 며느리를 쫓으면 애꿎은 시어미의 심하다는 소문만 나겠소그려.

출처 1911 치악산 하:5

용례 03

문헌 용례

화김에 미다지를 드윽 열고 안져셔 익구즌 담비만 홀아비 굴둑에셔 연긔 나오듯 빡빡 먹고 안졋다가.

현대어 풀이

홧김에 미닫이를 드윽 열고 앉아서 애꿎은 담배만 홀아비 굴뚝에서 연기 나오듯 빡빡 먹고 앉았다가.

출처 1912 황금탑 83

용례 04

문헌 용례

ᄆᆡᄂᆞᆫ ᄯᅳᆫ 놈에게 맛고 애ᄭᅮ진 문보에게 분풀이를 ᄒᆡ 볼 작졍으로.

현대어 풀이

매는 딴 놈에게 맞고 애꿎은 문보에게 분풀이를 해 볼 작정으로.

출처 1935 조선일보 10월 27일 2면

용례 05

문헌 용례

작야에 내린 애꾸진 비로 인하야 그라운드는 진흙 투성이(泥濘化)가 되여 극히 불호한 컨디슌을 무릅쓰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애꿎다에 관한 주석

'애꿎-'을 창자 또는 속을 뜻하는 명사 '애'와 나쁘다를 뜻하는 형용사 어간 '궂-'이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속이 나쁘다, 심사가 상하다의 뜻에서 억울하다의 뜻으로 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17세기의 표기가 '익굿-'인 것을 보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애'와 '궂-'이 결합한 것이라면 '익굿-'이 아니라 '*애굿(애궂)-'으로 표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厄'의 예전 한자음이 '익'이라는 점을 통해 '익굿-'의 '익'이 한자어 '厄'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애꿎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심재기 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김민수 편 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애꿎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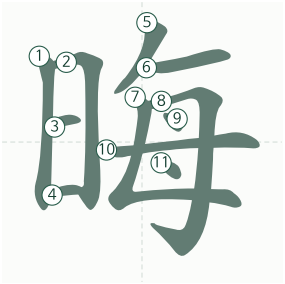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晦

뜻·음 그믐 회

총 11획 · 부수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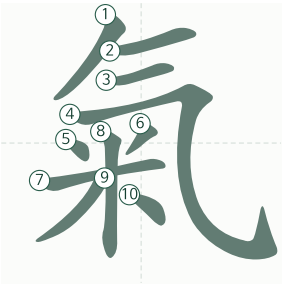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晦/

氣

뜻·음 기운 기

총 10획 · 부수 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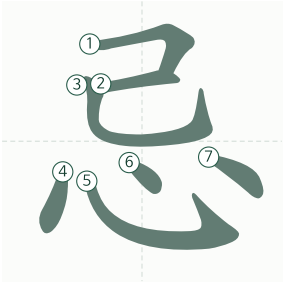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氣/

忌

뜻·음 꺼릴 기

총 7획 · 부수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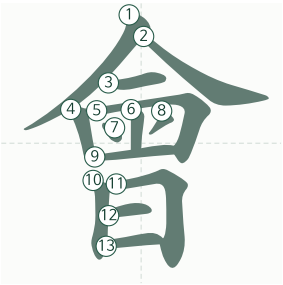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忌/

會

뜻·음 모일 회

총 13획 · 부수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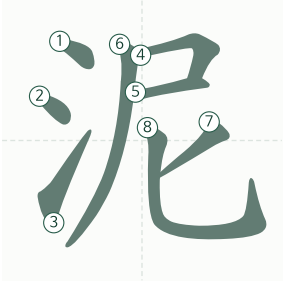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會/

泥

뜻·음 진흙 니

총 8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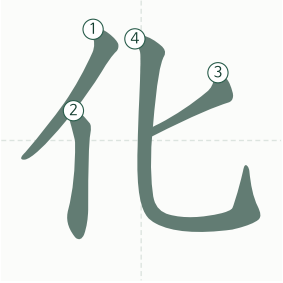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泥/

化

뜻·음 될 화

총 4획 · 부수 匕





hanja.wordrow.kr/한자/化/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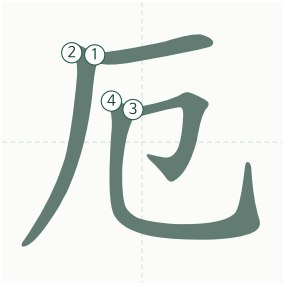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厄 뜻·음 액 액

총 4획 · 부수 厂





hanja.wordrow.kr/한자/厄/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사전 상세 항목이 없는 본문 한자: 濘 · 厂.